(붙임 2)

사 진 자 료

모란도 병풍
牡丹圖風

커다란 화면을 모란 그림으로 채운 4폭 병풍이다. 볼록하게 솟아오른 땅 위로 줄기가 자라나 탐스러운 꽃송이가 만개한 모란을 그렸다. 각 폭마다 모란꽃을 가로로 3송이, 세로로 5송이씩 배치하였다.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궁중 모란그림 병풍의 도식적 구도를 보여준다. 예로부터 모란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져서 생일, 혼례, 회갑 등 각종 연회에서 이용되었다. 궁중에서는 가례뿐만 아니라 길례吉禮와 흉례凶禮 등의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었으며,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.

화조도 병풍
花鳥圖屛風

평양 출신 서화가 양기훈(1843~?)이 그린 10폭 병풍이다. 소나무, 대나무, 매화, 모란, 연꽃, 국화, 석류, 노안, 백로 등 각기 다른 길상 소재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구도[편파偏頗 구도]로 그렸고, 농묵을 적절히 이용해 묘사하였다. 장수, 부귀 등 세속적 기원을 담은 길상문은 19세기에 크게 유행하여 미술품 전반에 장식되었다. 10폭 화면의 좌측 하단에는 양기훈의 호인 '석연石然'과 '양기훈인楊基薰印'의 주문방인[양각 도장]이 세로로 나란히 찍혀 있다.

연잎 모양 큰 벼루
荷葉硯

평안북도 압록강변에 위치한 위원渭原 지방에서 나는 징니석澄泥石으로 만든 벼루다. 몸체는 연잎 모양으로 조각했고, 벼루함 뚜껑은 나무로 제작한 뒤 윗면에 자개를 붙여 용무늬와 구름무늬를 표현하였다. 연잎[荷葉] 형태의 벼루는 중국 송나라에서 유행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도 다수 제작되었다.

좌측부터 ① ~ ⑤

왕실 사인
王室私印

조선 왕실의 인장에는 왕과 왕비의 존엄을 상징하는 어보, 국가업무에 쓰는 국새나 관인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인私印이 있다. 사인은 다양한 크기와 재질, 독특한 모습으로 제작되었다. 인장에 관심이 컸던 헌종憲宗(생몰 1827~1849, 재위 1834~1849)은 선대先代 왕들의 인장과 자신이 수집한 인장의 정보를 모아『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』을 간행하였다. 단순한 직뉴를 비롯하여 상서로운 동물을 조각한 다양한 인뉴印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. 고궁박물관 소장 헌종의 인장인'만기여가萬幾餘暇'와 2014년 환수된 왕실 사인 등 총 6점이『보소당인존』의 그림과 일치한다.

① 우천하사(友天下士): 세상의 선비와 벗하다

② 쌍리(雙螭): 두 마리의 용

③ 향천심정서화지기(香泉審定書畵之記): 헌종의 호 '향천', 헌종이 서화를 감상하고 찍은 인장

④ 춘화(春華): 봄의 꽃

⑤ 연향(硯香): 벼루의 향기